

건강·의료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광주희망병원 3월 개원

북구 용두동에 지상 9층 120병상 규모 환자·치료사 1대1 맞춤형 재활 치료

맞춤형 재활치료 전문 병원인 '광주희망병원'(대표원장 박종근·이하 희망병원)이 오는 3월 개원한다. <주감소> 희망병원은 대지면적 2천251㎡, 연면적 1만1천487㎡에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광주시 북구 용두동 바닷길 건너편에 오는 3월 초 들어설 예정이다.

희망병원은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를 주축으로 뇌신경재활·통증재활·척추신경재활·소아재활·연하재활클리닉을 갖추고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활치료실로 사용되는 병원 3층(약 826㎡)은 운동재활치료실·소아재활치료실·작업치료실·인지재활치료실·언어치료실·일상생활동작치료실 등으로 세분화돼 있으며, 환자는 전문치료사에게 1:1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리치료실도 척추·측만증·인공관절술 후 재활치료·근골격계 통증 및 외상에 대한 재활치료·이완통증치료 등으로 각각 나눠 운영된다. 재활치료실 옆에는 녹지공간을 마련, 재활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활병동(2개 병동, 총 120 병상) 안에는 수치료실과 운동공간을 만들어 치료시간 외에 환자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능동적인 재활 치료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종근 원장은 "급성기 질환과 만성 질환에 특화된 전문 치료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병으로 약해진 신체 기능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한겨울이면 육신육신 '골관절염'

골관절염은 100여 가지가 넘는 관절염 가운데 가장 흔하다. 전체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지만, 주로 65세 이상 노인이 많다. 예전에는 노화현상으로 불려왔지만(연골)가 닳아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불렀다.

골관절염은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세포의 탄력이 떨어져 관절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연골과 연골 주위의 뼈에 염증이 생겨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온다. 통증은 기온이 낮을 겨울이나 습기가 많은 날 심해지며, 심할 경우 관절이 변형되기도 한다.



광주시 남구 효정형외과 정고훈 원장이 골관절염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예방과 치료

몸무게 5% 줄이면 통증 크게 준다

◇우선 '살을 빼라'=나이가 많으면 골관절염이 생기기 쉽다. 하지만 비만인 사람이 골관절염을 앓을 가능성이 약 두 배 높다. 염증이 체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무릎, 엉덩이, 허리 관절에서 자주 발견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픈 경우가 좋은 예다.

연골 노화 따른 심한 통증·관절 변형 온찜질 통증에 도움...심할때 수술해야

◇관절염이 잘 생기는 집안도 있다. ◇치료 방법은 없다=안타깝게도 손상된 물렁뼈를 완전히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 치료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술 치료가 있다. 약물 치료는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일부 약국에서 '관절염의 특효약'이라고 약을 판다던 주의해야 한다. 호르몬제제의 일종인 '당질코르티코이드'(프레드니솔론, 덱사메타손 등) 약은 먹으면 통증이 씻는 듯이

구성 성분인 '하이알루로네이트'는 물질을 넣어 윤활기능을 보강해 주는 치료법도 쓰이고 있다. ◇겨울철 운동시 주의할 점=수술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의 힘을 길러 인대의 강도와 탄력을 높이는 게 더 좋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는 자칫 관절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낮으면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질 수 있어 새벽 운동은 피해야 한다. 과도한 근력 운동을 하면 할양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 운동량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무릎이나 발목이 아픈 사람은 등산 대신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수영을 하는 편이 더 낫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아기 만지기 전 반드시 손 씻어야"

서울대병원 "바이러스 전염 원인"

'아기 만지기 전, 반드시 손을 씻어라.' 서울대병원 소아과 이환중·최은화 교수팀은 지난 2000년~2005년 호흡기 질환으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은 5살 이하 영·유아 515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별 발병원인을 조사한 결과 RS(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23.7%), 인체코카바이러스(11.3%), 아데노바이러스(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RS 바이러스는 모든 영·유아가 생후 2살까지는 거의 100% 한번 이상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전염력이 매우 높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바이러스는 씻지 않은 손, 손잡이의 표면에 몇 시간 생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필뉴스

여대생 10명 중 9명 "망치 발가락"

여대생의 10명 중 9명이 꼭 끼는 신발 때문에 발가락이 망치 모양으로 변형되는 '망치 발가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한현경·김원영 강사와 전경경 교수(의류학 전공)가 발표한 공동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대 여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족저 형상에 의한 발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89.1%가 엄지발가락을 뻗은 발가락 중 1개 이상이 '망치 족(足)'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경 교수는 "발가락이 변형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등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필뉴스

영화안내 m-o-v-i-e-s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M관 최강 로맨스 (124) 최고급관

엔터시네마 1관 최강 로맨스 (124)

콜롬버스시네마 1관 히트 (124)

콜롬버스시네마 2관 히트 (124)

콜롬버스시네마 3관 히트 (124)

콜롬버스시네마 4관 히트 (124)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쌍문동 한국병원 옆)

금보부동산컨설팅 (11)261-8949 (북구 우산1 문충초등학교 옆)

인애공인중개사 011-642-0391 (삼우지구)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062-973-9174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삼우·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222-8446 (법원경매매장 옆)